

# 누나의 사춘기

김주원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날씨: 춥다가 덥다가, 누나처럼 번덕스러운 날

우리 누나에게 사춘기가 단단히 왔다.

사춘기는 누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엄마, 아빠에게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나비 번데기처럼 방에만 가만히 있다. 누나가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방을 살짝 보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눈에 시뻘건 불을 활활 뿜으면서 “어쩌라고, 저쩌라고, 꺼지라고!” 하며 나쁜 말을 쏟아 놓기도 한다. 누나의 물건을 만지기라도 하면 그날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한다.

옛날에는 도란도란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나랑 술래잡기 놀이도 했었는데 이제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처럼 전래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누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분이 바뀌었다. 흐리다가 맑다가

비가 오다가 번개가 치다가, 누나는 여러 날씨를 하루에 다 보여 주었다. 아니, 맑은 날씨는 거의 보기가 드물고 90퍼센트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이다.

누나의 사춘기 때문에 우리 집의 질서가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의 말도 엄마의 말도 통 듣지를 않는다.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다면 우리 누나에게 친구를 만났다면 반갑게 인사를 할 것 같다.

“어이, 친구. 반갑구먼. 말 안 듣는 게 나와 똑 닮았네.”

오늘은 누나 때문에 아빠가 화를 많이 내셨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생신에 가지 않고 친구와 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 누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누나는 그것마저도 잊은 것 같았다.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반찬도 많이 해 주시고 인절미 떡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안 먹고 친구와 놀면서 치킨을 먹겠다고 하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많이 섭섭하셨겠지만 “사춘기라 친구가 제일 좋은가 보네.”라고 말씀하시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셨다.

누나의 사춘기는 이상하게 밤만 되면 더 심각해진다. 시커먼 그림자가 누나의 사춘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다. 어쩌면 사춘기가 유령이나 귀신처럼 밤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나의 학원과 숙제가 사춘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다.

누나의 반항심은 개구리처럼 폴짝 뛰어서 점점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다가 하늘 끝까지 반항심이 높아질까 봐 걱정이 된다. 중학생이 되어야 사춘기가 오는 줄 알았는데 누나는 아직 초등학교 5

학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저렇게 심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걸까?

누나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근심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간다. 땅이 꺼질 만큼 깊은 한숨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이러다가 엄마, 아빠가 병이라도 걸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럴 때마다 누나가 많이 밉다. 예전의 착한 누나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언제 누나의 사춘기가 끝이 날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사춘기’라고 검색을 해 보았다. 인터넷에 나오는 사춘기 증상과 누나의 증상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

‘짜증, 반항, 친구, 다툼, 성장’이 사춘기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한다. 우리 누나의 요즘 행동과 딱 맞는 말이다. 성장만 빼고 말이다. 우리 누나는 이제 성장만 하면 완벽하게 사춘기를 겪는 것이다. 성장은 키가 크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마음이 자라는 것도 성장이다.

우리 누나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벽한 사춘기를 겪고 이제 그만 사춘기를 끝냈으면 좋겠다.

나는 누나의 성장이 기대된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 누나가 번데기처럼 방에만 있지 않고 나비처럼 예쁜 웃음을 보여 주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고 싶다.